



2013년 2월 5일(화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지난해 12월중 제조업수주 예상하회
- 2) 미법무부, S&P 상대로 소송 제기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한국, 블룸버그통신이 선정한 세계 혁신 국가 2위 선정
- 2) 채권왕 빌 그로스, 국제 금융시장 대형 신용 붕괴 경고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미국내 대형 쇼핑몰, 온라인몰 산업 증진으로 향후 5년간 15% 폐쇄 전망
- 2) 美-멕시코간 토마토 분쟁 15년만에 잠정 타결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지난해 12월중 제조업수주 예상하회

- 지난 2월4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지난해 12월중 제조업수주가 전월대비 1.8% 증가, 지난해 11월중 제조업수주는 0.0%에서 0.3% 감소로 수정되었다고 발표
 - 한편 전문가들은 2.3% 증가를 예상한바 있음
- 품목별로는 내구재 주문은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 주문은 감소
 - 내구재 주문은 건설 설비가 12.2%, 컴퓨터 주문은 6.4% 증가하는 등 4.3% 증가를 기록
 - 반면 비내구재 주문은 석유와 담배의 감소세로 인해 0.3% 감소
- 한편 변동성이 큰 운송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0.2% 증가해 전월의 0.2% 감소보다 개선

2) 미법무부, S&P 상대로 소송 제기

- 지난 2월5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미법무부가 국제 신평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
 - 미법무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 주택담보(모기지)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S&P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
 - 한편 미법무부는 그간 S&P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4개월간 논의해 왔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소송을 결정
- 이로써 금융위기와 관련돼 의혹이 제기된 신용평가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법적 대응으로 기록 됨
 - 한편, 미법무부는 S&P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한국, 블룸버그통신이 선정한 세계 혁신 국가 2위 선정

- 지난 2월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혁신 국가 조사에서 지난해 3위보다 한 단계 올라선 2위에 선정되었다고 보도
 - 순위는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연구개발(R&D) 투자 정도, 첨단기술 집약도, 연구원 비율, 기술 집약적 제조업 비중, 생산성, 교육 효율성, 특허 활동 등 7개 항목을 합산해 집계한 결과
 -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블룸버그, 세계은행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컨퍼런스보드, 유네스코,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
- 한국은 특허 활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반면, 생산성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

특허활동 분야	기술 집약적 제조업 비중	첨단기술 집약도	교육 효율성	R&D 투자	연구원비율	생산성 평가
1위	3위	3위	4위	5위	8위	32위

○ 한편 지난해 7위를 기록한 미국은 1위로 급부상

- 미국은 첨단기술 집약도에서 1위, 생산성 3위, 특허활동 6위, R&D 투자와 연구원 비율이 각각 9위, 10위로 집계
- 반면, 교육 효율성 26위, 기술 집약적 제조업 비중 52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

2) 채권왕 빌 그로스, 국제 금융시장 대형 신용 붕괴 경고

- 지난 2월4일(현지시간) 세계 최대 채권펀드 펴코 창업주 겸 CIO인 그로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2월 서한에서 국제 금융시장에 대규모 신용 붕괴 상황이 임박, 금과 같은 현물에 투자하라고 권고
 - 그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체감 환경에 적응, 상품 같은 실질적인 자산 보유를 늘리고, 주식 같은 실질성이 떨어지는 금융자산은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
- 아울러 그로스 회장은 신용 기반의 現금융시장과 금융시장이 지지하고 있는 경제는 지렛대 작용을 받고 있으며 취약하고 점점 더 재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미국내 대형 쇼핑몰, 온라인몰 산업 증진으로 향후 5년간 15% 폐쇄 전망

- 지난 2월4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향후 5년간 미 대형 쇼핑몰의 15% 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보도
-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내 쇼핑몰 공급이 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
 - 일부 극장과 불링장, 레스토랑을 갖춰 손님을 유치하는 대형 메가몰들은 비교적 안전하지만, 규모가 작은 중소 쇼핑몰들은 과다 공급으로 향후 수년간에 경영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
- 또한 온라인 쇼핑은 미소비자 소비액의 1/10을 온라인에서 지출하는 등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
 - 블랙프라이데이 등 지난해 연말 쇼핑 기간중 전체 매출은 전년비 3% 상승한 반면 온라인 판매는 14%로 대폭 늘어난바 있음
- FT는 현재 미 업계는 매출이 점점 하락, 지난 18개월간 매장 수를 줄여온 시어스와 JC페니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

2) 美-멕시코간 토마토 분쟁 15년만에 잠정 타결

- 지난 2월3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미상무부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대한 반덤핑법 강화를 강화하고 최소 도매가격을 재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
- 미상무부는 지난 1996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토마토에 최저가격을 매기는 협약을 멕시코 생산자들과 체결
- 하지만 미국 플로리다주 토마토 농가들은 멕시코산 토마토 가격이 미국산 토마토 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덤핑으로 미국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며 미상무부에 협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온바 있음